

예수승천 대축일
(세계 홍보의 날)

기도서 305면 (B해)

제1독서: 사 도 1, 1-11

제2독서: 에 페 1, 17-23

복 음: 마르코 16, 15-20

숨 정 이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코 16, 15).

강 련

소 리

왜 기쁜 소식인가?

홍보, 어떻게?

권 이복 신부 / 홍보국장

“나는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세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한번,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II 고린 11, 24-25, 27).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처음 소개했던 바울로 사도의 편지중 일부입니다.

그는 것처럼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에게 전해야 할 소식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소식 때문에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해야 했지만, 붉은 피를 쏟으며 죽을 지언정 외쳐야 되는 소식이 있었으니 그는 이를 ‘에우안젤리온’ 즉 ‘기쁜소식’(Good News), 복음(福音)이라 하였습니다. 원래 이 용어는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한 국가의 존폐를 가름하는 큰 전쟁에 휩싸여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외치는 ‘승리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이겼다.’ 그리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 딸까지도 모두 구원되었다’라고 외쳐대는 ‘기쁨의 고향소리’를 이 단어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외모로 본다면 지극히 왜소하고 불품없는 모습의 바울로 사도, 더우기 언변도 남달리 뛰어나지 못했고 평생동안 따라다니던 병고에 시달려야 했던 그였습니다.

옥고와 시련의 와중에서도, 그 모든 극한 상황을 넘어선 기쁨을 창조해낸 바울로 사도... 과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기에 그를 그토록 열정에 사로잡히게 하였는가?

성서는 한 마디로 이렇게 말해 줍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이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요한3, 16-17). 즉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인간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결코 아쉽지 않은 기쁜 소식 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소식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진정 세상 모든 것을 넘어선 ‘기쁜소식’으로 들려옵니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세계 홍보의 날 담화문의 첫머리에 참으로 의미깊은 주제를 제안하고 있다. -「만일 언젠가 ‘홍보한다’는 말이 ‘형제애를 맺는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커뮤니케이션’이 참으로 ‘인간의 결속’을 의미하는 날이 온다면, 이것은 바로 ‘매스콤’의 가장 훌륭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홍보한다는 의미는 널리 알린다는 뜻이다. 지난 선거에서도 보면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댓가를 지불하며 자기의 상품을 널리 선전하려 드는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사실 이 시대의 홍보매체들은 그것을 접하는 대중들에게 유익함을 주기보다는, 알파하게 관능이나 만족 시켜주며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방향으로의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듯이 보여진다.

홍보의 참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알려 상대방과 하나가 되고자 함이다. 커뮤니케이션은 그 어원처럼 “부수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부수어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의 홍보매체들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은 세계 홍보의 날, 우리 모두가 「제2의 신」이라 불러주는 대중매체들에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하는 날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홍보수단의 실상을 살펴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자성해야 하는 날이다. ✎

숨 정 이 산책



“전주 ‘평화 방송’ 설립을 추진하며”

“우리 방송이 있었으면...”하는 꿈 같은 소리를 오래 전부터 들어 왔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 같다. ‘여기는 전주 평화 방송입니다’ 라는 전파가 감격스럽게 우리 귀를 때릴 날이 다가 온 것이다.

우리 방송 설립은 ‘서울 평화 방송’ 설립이 그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방송의 필요성이야 절감하지만 그 많은 프로그램 제작하기엔 물적 인적 자원의 충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들려온 ‘서울 평화방송 설립’의 소식은 가히 ‘기쁜소식’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서울 방송을 받아 우리 자체 프로그램과 함께 방송하게 될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것들은 차차 연구 검토 해야겠지만 정의, 평화, 자유를 위한 진리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리라. 우리는 1986년 초 필리핀 교회와 교우들이 운영하고 있는 ‘라디오 베리파스’가 ‘마르코스’ 정부 말기에 기록했던 권리의 소리, 평화의 사도 역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반면에 1980년 5월, 그 유명한 광주사태 당시를 아픈 마음으로 되새겨 본다. 그때 우리 언론은, 신문도 방송도 잡지도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라 한 구석에 전쟁이 터져 수백 명이 죽어 가는 데도 우리의 방송은 그저 유행가 가사만을 저질스럽게 흘러 보내고 있었다. 급기야 흥분한 시민들은 방송국을 불사르고 채널을 이북 방송에 맞추기 시작했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래도 이북 방송은 자신들의 험악한 처지들을 열심히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30여년 군사독재치하에서 철실히 깨달은 바가 있으니,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그리고 효과적인 북음 전파를 위해, 어떤 권력에도, 어떤 금권에도 굽히지 않는 진리의 소리, 진리의 방송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이제 때가 되어 우리의 ‘방송’ 설립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인력과 재력을 요구합니다. 우선 최소한 5억의 설립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0만 교구민의 힘을 모아 기도하고 절약한다면 ‘우리 방송국’ 설립은 결코 꿈이 아닐 것임을 확신하며 이 일을 시작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문의처 : 전주교구 홍보국)



성서와 함께

2.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

성서를 대충 훑어보면 이스라엘 역사(구약)와 예수님 이야기(신약)가 그 뼈대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성서가 입고 있는 옷 또는 성서의 배경에 불과하고 성서가 진정 말하고자 하는 바는 따로 있다.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사건들, 예수님의 생애와 인격과 가르침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역사적 사실로만 처리된다면 오늘 20세기 후반기를 살고 있는 극동의 한민족인 우리에게 성서의 내용들이 무슨 의미를 던져줄 수 있겠는가?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역사가 고대근동사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무시되어도 좋을 지경이다. 예수라는 인물과 그 생애도 당대의 로마나 회람의 역사가들에게 거의 기억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인류의 정신문화를 지배해 왔을까? 그 이유는 성서의 속 내용이 시공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던지며 인간성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할 때 성서는 짐짓 과장된 이야기 책에 불과할 것이다.

성서는 두 가지 핵심내용을 안고 있다. 하느님 소개와 인

간 소개. 이 둘은 성서의 어느 페이지를 열어봐도 찾아볼 수 있다. 창세기의 신화적인 이야기들, 모세와 판관들의 건국 초기의 투쟁사, 예언자들의 정의로운 외침, 예수 사건과 그 여파, 사도들의 사목적 활동과 초기 공동체의 모습들, 묵시록의 수수께끼같은 예언들, 이 모두 안에서 성서작가들은 하느님과 사람의 정체를 끊임없이 밝히고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비천한 (히브리족은 본래 천민출신이었다) 민족의 비극적 역사를 통해서 성서의 독자들은 하느님의 성실하고 끈기있는 초대를 접하고, 인간의 배반과 그 결과가 얼마나 인간성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지 배우게 된다. 동시에 하느님의 초대를 감사하게 받아들인 성서의 인물들이 자신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도 인간의 보편적 선익과 행복을 안겨다 주는지 깨닫게 된다.

성서에 나타난 사건과 인물들은 한 마디로 나와 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표징이다. 그리고 성서 안에서 외치는 초대자이신 하느님의 목소리는 지금 이 순간 나와 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하느님의 말씀이다. ☞

■ 회 소 식 ■

성인병 민간요법 무료상담

일 시 : 1988. 5. 18 부터
장 소 : 전주 서학동천주교회 내
임시연락 84-8370
상담자 : 經筋·灸(뜸) 요법연구회
전북지회장 조 베드로(정응)
교육원장 신 방지지(봉강)

■ 축 ■ 창 간

무료끊지 않는
한겨레신문

군산지국·녹두서점
김 종철 (스테파노)
☎ 2-0230

모 집

40대 미만의 여성으로 일
본자수 하셨던 분이나, 동
양자수 하셨던 자매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자수에
소질이 있어 매우실분도
환영)
위치 : 평화국교 정문앞 성심문구사내
변 스텔라 ☎ 83-6540

교 구 소 식

- * "선택" 전주에서 실시 : 서로 알고 사랑하며 나누기 위하여 (3면 본문 참조)
내용 - 젊은이들의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한다. 회비 - 20,000원
일시 - 5월 20일(금) 오후 6시~22일(일) 오후 5시 대상 - 모든 남·녀 젊은이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신청 - 교육국 (85-0041) 으로 접수순 60명
- * 이 누갈다, 유요한 동정부부 순교자 현양을 위한 근무용단 공연(배 정혜의 춤 '유리도시')
때 - 1988. 5. 22(일) 오후 6시 곳 - 학생회관
구입처 - 각 분당 사무실 일반 - 3,000원 학생 - 1,000원

1. 교구재정심의회 : 17일(화) 오전 10시 30분
2. 성소자 모임 : 29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교육관 중·고·대·일반.
3.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 교육 : 17일 오전 10시(입신을 원하거나 피임을 원하시는 분). 가톨릭센터 교육관 3층 행복한가정운동(85-5098) ※ 비디오 교육 18일 오전 10시
4.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성소 모임 : 일시 - 매월 네째주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 마포구 합정동 85-1 (절두산 기념 성당 옆). 문의 - (02) 324-8356·(0331) 44-9140.
5. 사랑의 씨튼 수녀회 성소피정 : 22일(매월 네째 주일) 09:30-17:00. 장소 - 광주 사랑의 씨튼수녀원 (062-525-2004). 대상 - 고졸이상 30세미만의 가톨릭 미혼여성. 회비 : 2,000원
6. 주소안내 : 송학동 천주교회. 570-080. 이리시 송학동 99-13
사제관 - 51-5340 사무실 - 3-9713

※ 축 / 영명 성애릭 (18일) : 윤에릭신부님 축하합니다.

"선택?"

젊은이들 간의 대화에서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와 보다 더 뜻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또한 부모와 가족과의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시작된 M. E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의 속함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체험하게 해 주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관을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직업 선택이나 배우자 선택, 혹은 결혼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석자들 사이에 깊은 대화를 통해, 젊은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삶의 의미, 자신의 가치, 인간관계, 미래의 삶 등)에 대하여 성실하고 가슴뜨겁게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여,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 잠깐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책은 그 사람이 누구 인가를 말해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구하기 위해 수십리 길을 걸어야 했던 시절이 었그제 같은데 이젠 홍수처럼 쏟아지는 홍보물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무책임하게 찍어대는 인쇄물들은 자신도 모르게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진리와 진실을 담은 책들은 돈벌이를 위한 흥미 본위의 책들에 밀려 설자리를 잃고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차체에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들을 점점 해 봅시다. 쓸데없는, 아니 오히려 해가되는 못된 책들만이 나뒹굴고 있지 않느냐 살펴 봅시다. 또한 읽어야 할 책은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여 봅시다. 안 중근 의사의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아니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一日不讀書口中生荆棘) 는 말씀을 새겨봅시다.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살아있는 물은 없는가?

혜미리정수기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혜미리 정수기가 공해산업에 동참하였습니다.

한국정수산업(주) 전북총판 ☎ 86-4442

이리대리점 3-9700 · 군산대리점 2-5235

혜미리와 동참하실 영업사원 및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중랑화장품 할인코너
중앙화장품 백화점
각종선물 도산매

중앙선물의 집

전주시 중앙성당 앞(구 한일싱크)
☎ 4-0841 박원규(안담)
결혼 선물세트 특별우대

요십이 (771) 김병오



□ 1분 명상

목적이 멀면 멀수록
더욱 더 앞으로
전진하여야 한다.
서둘지 말라.
허나 쉬지도 말라.

— 마도 지이니 —

명동피부과의원

감사합니다

지난 5일 선종하신 저희 부친 성해동(발살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태성
태환
태수 신부 올림.

◀ 신 간 ▶

카인의 땅

흙을 사랑하던 선량한 청년
브라이언은 왜 하느님을 저버리고
카인의 땅에 들어서게 되었을까!

P. 라핀/정성호/국판/320면/3,200원

취급처: 전주 생바로서관 ☎ 3-3398

☐삼례·익산지구 본당소식☐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고산

사제관 73-4019 주임신부 양경배
수녀원 73-4110 사목회장 고석재

1. 구역 형제회: 공소-오늘 저녁 9시
2. 미사 시간 변경: 일요일-아침공소미사-8시30분
공식미사-10시30분
평일저녁미사-오후9시
3. 수녀님 연중 피정: 16~21일 까지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바람.
4. 성모의 밤 행사: 31일 저녁 9시
5. 예비자 교리: 일,토요일 교리에 빠지지 맙시다.
6. 금주전례: 독서① 장경암 ② 임순자 봉헌: 최규진부부
차주전례: 독서① 이재만 ② 박은단 봉헌: 김종남부부

☐ 지난주봉헌금: 145,390원 ☐ 교무금: 162,000원

*금마

사제관 53-7187 주임신부 이덕근
사무실 53-6244 사목회장 김상홍
수녀원 53-7157

* 예수 승천 대축일

1.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 합니다.
창세기 12, 1-20 마태복음 12, 1-50
2. 불우이웃돕기 폐품수집
미사때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3. 모 임: 꾸리아- 다음주 공식 미사후
울뜨레아- 목요일 저녁 8시
4. 성서 40주간에 관심 있으신 분은
5월 31일 까지 신부님께 신청 바랍니다.

☐ 지난주봉헌금: 111,890원 ☐ 교무금: 140,000원

*삼례

사제관 73-8469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9-2018 사목회장 김울수
수녀원 9-3196

1. 셋별꾸리아 월례회: 밤9시
2. 감사합니다: 승천축일 야외 미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
3. 예비자 교리개강: 19일 부터 매목요일 신부님 지도 교리
반이 개강되오니 예비자 인도에 힘을
기울여 주세요 밤9시
4. 금주전례: 특전 최경구 이순자 야외미사 황탁규 서은자
차주전례: 특전 이창로 김윤채 공 식: 김복동 이인식
5. 사제양성후원사업용 저금통: 정성을 모아 다음 주일까지
모두 내어 주세요
6. 제물봉헌: 차주 강신일부부

☐ 교무금: 145,000원 ☐ 감사헌금: 5,000원

*여산

사제관 53-5016 주임신부 정천봉
사무실 사목회장 이상영

1. 성모회, 학생회: 공식 미사후
2. 아치에스행사: 공식 미사후
3. 성령 기도회: 수요일 저녁 미사후
4. 수녀원 건립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5. 금주전례: 독서① 박순옥 ②박기전
봉헌- 서석권, 박심순부부
차주전례: 독서① 이승복 ②임수광
봉헌- 장인숙, 이영남자매

☐ 지난주봉헌금: 137,660원 ☐ 교무금: 132,000원

*용안

사제관 6-2766 주임신부 정태현
사무실 사목회장 서홍문

1. 농번기 미사 참례-첫미사나 3시 미사 또는 토요일 오후5시
미사에 꼭 참례 합니다.
2. 성모회-5월 18일 10시 미사
3. 김대건 성인 추모 학생 배구대회 5월 22일 9시 화산 성당
4. 교무금 현황-교통-44.6%, 성치-56.4%, 덕용-55.6
%, 중신-70%, 석동1-44.8%, 석동2. 79%, 신은-27.
2%, 범성-45.4%, 구산-31.8%, 총산-88%, 교항-60
%, 성당-40%, 난포-84%, 두동-67%, 제성-5%, 맹산
-39%, 전체-51% 지금까지 미납 퇴신분 빨리 완납
5. 금주전례: 해설-이성용, 독서-양종규, 박종철, 봉헌-
박수규부부
차주전례: 해설-송형식, 독서-김기문, 이영순 봉헌-박
석규부부

☐ 지난주봉헌금: 137,010원 ☐ 교무금: 232,000원

*함열

사제관 6-0165 주임신부 서석기
사무실 6-0065 사목회장 김종도
수녀원 6-1539

- * 승천야외미사: 오늘 10시 30분 동지산에서 도시락 지참
1. 다음 주일은 4대 축일의 하나인 성신 강림 대축일 입니다.
2. 구역장, 반장, 반상회 지도자 모임-오늘 공식 미사후
3. 구역회내일(월요일) 저녁8시 각 구역 반에서
4. 꾸리아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5. 썸머타임에 의한 미사 시간 안내:
주 일: 아침6시 공식미사 10시 학생미사 오후3시
토요일: 어린이 미사 (특전미사) 오후3시
평 일: 월요일-아침6시 화-금-저녁9시
6. 청년회-오늘 야외 행사후 단합대회 있음.

☐ 지난주봉헌금: 300,750원 ☐ 교무금: 133,000원

*화산

사제관 6-3671 주임신부 김종길
사무실 사목회장 김상우

1. 성모회: 공식 미사후 회합실에서
2. 성김대건신부배: 학생배구대회 22일
3. 주일학교 소풍: 협력하여 주신분께 감사
4. 미사시간 변경 썸머타임중
아침미사 6시 공식미사 10시 저녁미사 9시
5. 차주전례: 첫미사 우철중부부
공식미사 이용재, 박춘례

☐ 지난주봉헌금: 120,460원

*황등

사제관 52-2541 주임신부 김순타
사무실 사목회장 장현순
수녀원 52-7634

1. 모 임: ①구역장 회의 차후로 연기
②구역형제회의: 금주목요일 오후9시
2. 미사시간 변경: 주일미사 오전 10시30분
평일 주일 저녁미사: 오후9시
3. 천진암 성지순례: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4. 세례식: 5월21일 오전9시 30분
5. 성모의 밤 행사: 초 봉헌하실분 수녀원에 신청요
6. 금주전례: 해설-김낙천 독서-장현순부부 봉헌-하귀남부부
차주전례: 해설-김용자
독서-김종규 부부 봉헌-이군순 부부

☐ 지난주봉헌금: 211,380원 ☐ 교무금: 150,000원

☐ 특별헌금: 신중 문병준(감사헌금)